

1004섬 신안, 문화예술로 지역발전 날개 단다

중기부,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해양자원 융복합
폐교 문화공간 적극 활용…지역소멸 위기 대응 극복

‘1004섬’ 신안군이 문화예술산업 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신안군은 문화·예술·해양 자원의 융복합을 통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관광·창작 생태계로 확장해 지역발전 도모에 나선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청사 회의실에서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위원회를 열고 전남 신안과 울산을 각 문

화예술산업, 해양산악레저 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특구법에 따라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적으로 총

172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신안군의 지정은 지역특화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도 그럴 것이 신안군은 1028개 섬으로 구성된 다도해로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 천혜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등 독특한 문화정책이 공존하는 문화예술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문화예술산업 특구 지정에 따라 신안군은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융합,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어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섬 브랜드를 구

축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데 이를 위해 체계적 예술가들과 협업해 박물관을 건립하고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아울러 ‘1섬 1정원’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수산물에 융복합 산업화도 병행,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와 함께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존 특구들에 대한 전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함께 심의·의결했는데 화순 백산산업특구 등 총 9개 특구가 ‘탁월 특구’로 선정됐다.

지난 2010년 지정된 화순 백산산업특구는 생물의약산업, 화순전남대병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 바이오 및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백산산업의 메카로 육성

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정됐다.

136억원의 글로벌 바이오기업 투자 결정,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 화순국제백신·면역치료 포럼 등은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신안과 함께 신규 지정된 울산은 일산해수욕장 등 해양자원과 영남알프스 산악자원을 연계해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복합 레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용친화적 관광산업으로 다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해상·산악 케이블카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해 로컬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양

과 산악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를 추진한다. 최근 ‘반구천 암각화’의 유네스코 등재와 정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선정은 특구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신규 지정된 특구들은 지자체가 지역이 보유한 해양·산악, 다도해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관광, 문화, 산업을 융합하려는 혁신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자체가 발굴한 특화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신안=성명준 기자 tjdaudwns@gwangnam.co.kr



전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담양군 추성경기장에서 열린 '제42회 전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문열어

122억원 투입…장애아동 건강한 회복·성장 기대
감각통합치료실 등 최첨단 재활시설·의료진 상주

전남도는 최근 목포중앙병원에서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식을 열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회복과 성장을 돕는 전남형 공공재활의료 서비스의 첫 발을 내디뎠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주최하고 목포중앙병원이 주관한 개원식에는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 김원익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김정옥 넥슨재단 이사장, 의료계, 사회복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림학교 학생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센터 건립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기념사·축사, 비전선포 퍼포먼스, 기념촬영과 테이프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을 기부한 넥슨재단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이 열려 민관이 함께 만들어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 의미를 더했다.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진단과 집중재활

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이다. 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총사업비 122억원이 투입돼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됐다.

언어·작업·물리치료실,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등 최첨단 재활시설을 갖췄으며,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총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지난 8월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재활치료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아동 36명이 386건의 진료를 받는 등 지역 장애아동과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정옥 넥슨재단 이사장은 “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원이 지역 내 장애아동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권역별 의료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그동안 재활치료를 위해 먼 길을 오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며 “장애아동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남의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동구, 카페서 텀블러 이용하면 포인트 지급

‘동구라미 온’ 300원 적립

광주 동구가 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4일 동구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지난 7월 환경부 탄소포인트 ‘예비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2026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동구는 5일부터 시민이 참여 매장에서 개인 컵(텀블러)을 이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동구라미 온 포인트 300원을 적립한다.

소비자는 동구 자원순환 앱 ‘동구라미 온’을 설치하고, 참여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포인트가 적립된다. 2000포인트 이상 적립 시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동구는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동구라미 온’에 최초 가입 시 1500포인트를, 월별 이용 상위 20명에게는 3만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참여 카페는 동구라미 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카페나 추천하고자 하는 주민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062-608-25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공공성·복리 증진’ 광주 남구시설공단 출범

광주 남구시설공단이 3일 남구종합청사 별관 2층에 등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남구시설공단의 출범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2022년에 실시한 용역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받은 뒤 2년여 만이다.

남구시설공단은 공단 설립 목적인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방향을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실현하는데 방향을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

특히 출범 초부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 관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구는 시설공단의 조직 규모를 경영지원팀과 공공시설팀, 체육생활팀 3개 팀으로 편제했다.

주요 시설물로는 관내 공공주차장과 다목적체육관, 봉선 테니스장, 현수막 게시대 등이 있으며,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 온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관리 부분까지 도맡아 관리한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경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 성과발표회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었다.

전남농기원·경남농기원, 신품종 연구 공유

양파·키위·딸기 등 9품종 평가…농가 보급 확대 ‘맞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경남도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신품종 공동 실증연구 성과발표회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3년 체결된 ‘전남-경남 상생발전 공동협력 합의’의 후속 조치로, 양 도가 각각 개발한 대표 작목의 신 품종을 상호 실증 평가해 지역 적응성을 검토하고 우수 품종을 조기에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전남 육성 양파 ‘아리아리랑’, ‘금송이’, 그린키위 ‘해구’ △경남 육성 양파 ‘아크네’, 딸기 ‘금실’ 등 3개 작목 9품종의 실증 결과가 공유됐다.

특히 두 기관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지역 적응시험과 재배·유통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품종 특성과 재배관리 기술, 수확 후 품질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원예작물 신품종 공동 실증시험 및 보급의 지역 연계 강화 △품종 갱신을 통한 생산성·수익성 제고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 사업화 모델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증데이터 공유와 연구자원 교류를 적극 확대하고, 공동연구의 폭을 넓혀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장애인친화도시 광주, 무장애 건축물 0.3% 불과”

정다는 시의원 “건축물 14만3595동 중 인증 486곳”

광주지역에 장애인·노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BF)이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정다는(민주당·북구2·사진)은 이날 복지건강강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BF(Barrier-Free·무장애) 인증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14만3595동(9월 30일 기준) 중 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에 등록(2025년 9월 30일 기준)돼 있는 장애인은 6만8595명(지체·뇌병변 3만3944명)이고, 노인 인구는 25만7902명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광주시 내 BF인증 건축물은 공공 444곳, 민간 42곳에 불과하며, 이 중 ‘최우수(S등급)’ 인증을 받은 건물은 8곳뿐으로 대부분이 우수(A등급)나 일반등급 수준에 머물러 있다.

BF건축물 확산을 위한 재정적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최근 5년간 광주시의 BF건축물 관련 지원 예산을 보면,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16억8000만원(국비 11억7600만원, 시비 5억4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70개소) 1억1000만원이 전부다.

또 ‘광주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는 2014년 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BF 인증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여전히 ‘5년 재인증’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또 조례상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인증 현황을公示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관련 게시물이나 공식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다는 의원은 “광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고령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공간의 접근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단 하나, 문턱 하나 때문에 일이 막히는 시민이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며 “실효성 있는 조례 정비와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배리어프리 도시 광주’를 실현하고, 모든 세대와 시민이 존중받는 열린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기 기자 sky@